

●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네트워크 1주년 기념 소책자 ●

보낸다는 우리 보낸다는 교회

발간목적

보낸다는 교회(선교하는 교회)로서 시작한 함께하는 교회의 1주년(5월 1일)을 맞이하며, 진정한 교회(An Authentic church)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사역 철학을 정리하고, 이 땅의 교회로 보낸다는 선교적 교회, 개척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Contents 목차

함께 하는 교회 한해 되돌아 보며 _3

로고 설명 _4

I. 이론적 근거 _5

1. 진정한 교회 : 선교하는 교회 missional church
2. 개척교회가 아닌 개척하는 교회 : 함께 하는 교회
3. 함께 하는 일상생활 정신
4. 순례자의식, 유목적 신앙, 흘어짐의 영성
5. 어린이 신앙 양육

II. 함께 하는 교회의 실제 _25

1. 함께 하는 교회의 시작
2. 함께 하는 교회, 함께하는 네트워크 취지문
3. 모임 안내
4. 재정 집행 정책(2005년)
5. 사역지와 사례에 대한 생각(Theological Reflection)

III. 참고도서

● 여는글

함께하는 교회 함께 되돌아 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뚜렷하지 않은 생각의 단초만 잡고 시작한 걸음이었습니다. 다만 Church building^o 아닌 Kingdom building^o 주안점인 교회를 (주일 뿐 아니라 평일의 삶을 구비하는) 경험하고 싶다는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좋은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기쁨이 무엇보다도 큰 기쁨입니다. 공동체와 나누면서 교회의 방향성과 재정 원칙, 그리고 주일모임의 모습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삼위하나님이 함께하는(Trinitarian), 한길가는 공동체 자체들이 함께하는(Communal), 우리가 보낸받은 곳의 이웃과 함께하는 (Missional), 시대적 고민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Emergent)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에다, 가능하면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50대 50의 원칙으로 재정을 사용해 보겠다는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생각이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해외선교와 구제 및 봉사에 마음을 설어보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교회가 대안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전세대가 함께하며 축복하는 예배는 우리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네트워크 속에 올해 초부터 '은혜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거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서로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되는 대로 함께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 함께 수고한 지체들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무엇보다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_ 지성근 목사



함께 하는 교회로고



1. Trinitarian

삼위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2. Missional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3. Communal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4. Emergent

시대적 고민과 함께하는 교회

I. 이론적 근거

1. 진정한 교회 : 선교하는 교회 missional church

(누가복음 10장 1절 - 3절, 16절)

진정성(Authenticity)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는 구심력적인 애클레시아와 원심력적인 디아스포라가 함께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 한쪽만 치우치고, 한편만 강조하게 되면 교회로서의 그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교회가 너무나 자주 애클레시아적 구심성을 너무 강조한다. 교회에, 특히 교회건물을 중심으로 자주 모이는 것을 강조한다. 교회 모임에의 현신을 최상의 현신으로 이해하고, 이런 모임이 많고 강력하면 강력할 수록 교회가 건강하다 생각한다.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교회로만 교회로만 강조하는 경향은 실제로 개별 신자의 영성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급기야 모이는 장소인 교회를 벗어나서 일터나 가정이나 이웃속에서 주되심을 생각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콘스탄틴이후 크리스쳔덤 기독교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원래 인간은 모여서 결집된 힘을 발휘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죄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추구했던 것이 바로그 예이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맷으신 언약의 본질을 곡해하여 예루살렘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모이는 방향, 구심력적인 운동의 방향만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경험을 통해 이들을 흘으시는 것을 경험해야 했다. 심지어 초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의 교회 마저 안으로 안으로 모이는 구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사도행전에 의하면 결국 성령께서 그들을 흘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애클레시아가 디아스포라를 향하도록 이끄시는 분이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을 유지하였다 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콘스탄틴이후 기독교는 제국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이 다 교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굳이 흘어질 필요가 없이 오히려 모이는 역학만이 강조되었다. 초대

missional church

교회에서는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보내심을 받은 mission의 현장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mission에 강조를 두었다. 그렇지 만 콘스탄틴이후 크리스텐덤 기독교에서는 mission은 전문적인 선교사들이 진행하는 기독교영역을 넘어선 미개한 땅, 이국땅에서 행하는 것이고, 교회는 mission보다는 maintenance 즉 교구를 관리하는 일에 초점을 더 맞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해외선교에 대한 강조가 이런 크리스텐덤 기독교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왔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교회가 자신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 밖에 대한 관심, 구심적인 생각보다 원심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해외선교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여전히 크리스텐덤의 문제가 극복된 것이 아니기에 선교운동이 오히려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낳게 되기도 하였다. 식민주의와 결부된 선교운동이 그한 예다. 최근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이 선교의 현장, 보내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missional church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운동은 선교사이자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과 데이빗 보쉬라는 선교학자에게 영감을 얻은 운동이다. 레슬리 뉴비긴은 해외선교사로 영국을 떠나 인도에 가서 수십년을 사역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과거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이제는 그어떤 선교지보다 더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회가 그저 자신들끼리 모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선교는 단지 미개한 족속들에게 가서 경제력과 국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 교회는 더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복음에서 멀리 떠나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와 심지어 한국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모이는 데만 아니라 흘어지는 데서 발견해야 한다는 운동이 바로 이 missional church 운동이다.

그런데 이런 missional church 운동이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우리 주님의 원래 보여주신 것이라면 사실을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을 좇으려 모였던 70인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에 대한 본문(원심적인 본문)에서 살펴볼수 있다. 1절부터 3절

까지 "보낸다"는 단어가 4번 사용한다. 거기다가 마지막 절인 16절의 "나 보내신 이"의 보낸다는 단어까지하면 본문에서 이 단어가 5회 사용한다. 이 보낸다는 단어의 라틴어 형태가 missio이다. 그리고 이 missio에서 miss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내용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과 일치한다.

누가복음 10장 1절의 "주께서 칠십인을 세우사 ...둘씩 앞서' 보내시며" 3절의 "내가 너희를 보내"다고 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장면,과 16절의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하실 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본문에 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의 보내심에 대해, 교회가 주목해야 할 선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선교가 무엇인가? 앞의 언급대로 "보내심"이다. 그런데 누가 보내는가? 전통적으로 크리스쳔덤 기독교는 선교의 주체를 교회라고 생각한다. 선교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선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유지 수단이나 프로그램 중 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오히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요, 목적이다.

혹은 개인주의적인 기독교 속에서 선교의 주체를 선교사 개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전문 선교사 개인이 자신의 내면적 동기, 선교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리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시는 예수님,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1절-3절, 16절) 선교는 세상을 다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경륜이다. 교회와 우리 개개인은 다만 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동참하는 것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개인이 선교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없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상을 향한 경륜'(폴스터본스가 말하는 선교의 정의)인 선교에 동참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선교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잠시 선교의 주체를 생각

했다. 그럼 계속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선교는 혹은 다른말로 잠시 바꾸어 전도는 나 자신을, 혹은 교회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쳔덤 기독교는 종교를 교회를 전파하여 개종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개종은 세계관을 바꾸지 않고도 종교나 제도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선교는 개종이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 진정한 회심을 낳게 하는 것이다. 개종은 교회나 혹은 교회지도자들의 아젠다, 욕심, 성취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크리스쳔덤 사고의 선교나 전도는 다분히 성취지향적이고 마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을 판매하는 느낌이 든다.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있다. 그러나 때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결국은 자신의 성취감을, 혹은 조직과 교회의 만족을 위해 선교하고 전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70인을 보내실 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진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진정한 선교는 예수께서 '진히 가시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마치 세례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아젠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람들의 삶과 마음에 들어가시도록 길을 예비 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이다.

그들의 메시지가 9절과 11절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다. 각동 각처, 모든 마을과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삶의 각 현장에서 주님은 "진히 가시려는" 각 사람의 마음에, 각 사람의 삶에 우리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이다.

이런 일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의 선교가 해외선교에 헌신한 전문선교사의 몫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과 은사를 사용하시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몫인 것이다. 어떤 분들은 9장의 12사도를 구약의 12지파에 대비하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해

한다면, 유사한 부르심과 보내심의 기록인 오늘 70인을 보내신 장면은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이 낳은 자손을 포함하여 야곱집안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의 숫자와 이 숫자를 연결시키면서 보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 전체로 70인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누가가 9장과 10장에서 거듭, 숫자를 늘리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런 보내심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리스도를 좇는 삶은, 제자의 공동체로 모이는 삶은 그리스도의 보내심, 흘어지는 삶과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결코 선교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선교는 혹은 전도는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16절이 그것을 이야기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 보냄을 받은 자들이 동일시 된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런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교일뿐만 아니라 1절의 말대로 주님의 보내심은 팀으로의 보내심이다. "둘씩"이다. 왜 둘씩일까?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외롭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안전하도록,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다 더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선교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요한복음 17장 21절(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의 언어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공동체적으로 있을 때 가장 잘 하나님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팀사역, 공동체적 삶과 사역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절의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보냄을 받은 현장을 위한 선교적 기도의 전형이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예수님의 권고에는 추수로서의 선교의 주체가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의식이 이미 들어 있다. 선교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 기도는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선교운동은 기도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해외선교운동은 기도운동에 기반한다. 보냄을 받은 캠퍼스에서의 선교운동인 학생운동을 보면 기도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실 디아스포라의 삶은 더 강한 기도운동으로만 가능하다. 애를레시아만 강조하는 구심력적 사고 속에서 기도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삶의 각 현장에서 부딪히며 사는 선교적 삶은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기도, 전쟁으로서의 기도를 경험하게 된다. 또 하나 이 기도를 하는 제자들 자신이 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가게 된다.

진정성을 지닌 교회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원심성과 구심성을 같이 겸비한 교회이다. 애를레시아와 디아스포라가 함께 가는 교회이다. 지난 1700년 동안의 크리스쳔덤사고의 교회의 모습을 넘어서는 보냄받은 교회, 선교적인 교회 missional church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선교를 우리의 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함께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선교이다. 선교는 단지 해외선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선교이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다. 선교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다. 다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다.

2절에서 기도하라고 한 대로 기도한 제자들은 곧 3절에서 보낸다. "갈지어다(Go on your way!)" 선교적 기도의 응답이 자신이 된다. 마치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에서 무너진 고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면서 결국 자신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던 것처럼, 각동 각처에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우리의 각자의 다양한 일터에서, 군대에서, 학교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아파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 친히 가시려는 길을 앞서 가서 마음을 준비시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데서 먼저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은 종교적인 영역, 해외에서의 종교적인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다고,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사람들 속으로, 각동 각처로 보냄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교회가 생각하는 선교는 해외선교를 포함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보냄받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팀과 공동체로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선교이다.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이 선교이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풍성하고 더 파워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나머지 6일의 선교현장, 추수의 현장에서의 삶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더 그렇다. 우리가 모여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이 선교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 예수님의 갈지어 다하시는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함께 하는 교회의 애콜레시아와 디아스포라, 모임과 흩어짐의 역동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이 예수님의 친히 가시려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는 예수님 앞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것이 우리의 선교적 정체성이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교(보내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2. **기적교회가 아닌 개척하는 교회 : 함께하는 교회**

(누가복음 10장 3절 하반절-16절)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임만을 추구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보냄받은" 교회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교회는 보내는 교회 이전에 보낸받은 교회어야 한다.

거의 무의식적 수준에서 해외로 선교를 떠나는 것은 의미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나의 직장이나 내가 현재 있는 이 곳은 의미가 있거나,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영역이 아닐거라는 생각이 우리안에 있다. 그러나 선교는 전문적인(혹은 스스로 감동을 얻은) 선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꼭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 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보내다'란 단어는 선교 mission의 어근이 되는 missio(보내다)이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주님의 선교에 대한 묘사이다.(cf.요17:18)

예수님을 죽는 제자라면 0장에서는 12제자를 보내시고 누구라도(꼭 해외선교사, 전문선교사, 전임사역자가 아니라도) 다시 보냄을 받는다. 어디로 보냄을 받는가 하면 '각동각처(every town and place)'로 보냄을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내심, 예수님의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를 모든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주님이 보내신 선교의 현장이며,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보낸받은 선교사가 되어 사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 일터, 마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먼저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의 삶에, 이 직장에 주님이 친히 오시려 하신다." 친히 주께서 가시려는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돋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보낸받은 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2절에서 주님은 보낸받은 일을 "추수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보낸받은 교회로서" 혹은 "보낸받은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둘씩 보낸받았으니)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은 펠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위해, 특히 사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이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자기 자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본문에서 두 번째 응답을 발견하게 된다.

"둘씩" 앞서 보내셨다는 1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개인적인 파송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파송, 공동체로서의 선교, 공동체적 개척에 대한 말씀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때 기본원칙이 "둘씩", "공동체"로 보냄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보

냄새는 자로서 추수하는 일군으로 살려면 혼자서는 불완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둘 이상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둘 이상의 공동체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의 출발이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라."(마 18:20)

일전에 "우리 교회는(전통적인 의미로) 개척교회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라면 개척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개척정신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정체되기 쉽고 내부적이고 소모적인 관계유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쓸게 되어 결국 교회 공동체로서의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척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보냄을 받은 삶, 추수하는 일, 개척은 안전하게,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보내신 이를 믿고, 메시지만을 들고 가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고 갈도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걱정어린 마음의 말씀을 하신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다. 이건 어떤 뉘앙스의 그림일까? 너무나 어려울 것이 당연하다는 그림이다. 이 추수의 일이, 이 보냄 받은 일이 이 개척의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다.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면 더 준비가 철저하여야 하지 않을까? 어려움이 예상되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물질과 자원들을 잘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 정석 아닐까? 어려운 길 떠나니 노지라도 두둑히 준비하고, 적어도 자신을 챙길 수 있는 물품들, 비상식량들은 주머니에 단단히 챙기고 신발도 여러켤레 준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4절 상반절에 무엇이라 말하는가?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라고 한다. 9장 3절에도 12제자를 보내실 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라고 말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선교지로 나갈 때 아무런 준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

씀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잘 준비해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씀은 보냄받은 자가, 보냄받은 공동체가 상황의 어려움, 혹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사람들에게 뭔가 줄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스스로 애쓰거나 노력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보냄을 받은자, 보냄을 받은 두명의 공동체는 칠저하게 보내신 분의 예비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냄을 받은 공동체는, 추수하는 일군들은, 개척자 공동체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 것이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뭔가 줄게 많이 있는 것처럼 노자두둑, 식량가득, 신발 한이름 싸들고 간다면, 혹은 7절 하반절에 있는대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면서 일하는 도중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이리 기웃거리며 다닌다면 복음의 초점이 흐려지게 될 것이다. 보냄받은 메시지, 들고가는 메시지가 왜곡되게 되는 것이다.

들고 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본문에 의하면 5절에 "평안"(shalom)을 들고간다. 9절과 1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이다. 복음의 핵심이 살롬이고, 하나님이 나라가 아닌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통치안에 진정한 평안, 살롬이 있다는 메시지를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안전보장이 되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은 하면서 사실은 물질이 돈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지닌 전대와 주머니와 여벌의 신과, 이집 저 집 더 나은 먹을 것을 위해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오늘도 교회를, 공동체를 개척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적은 수의 사람, 기본으로 두 사람이 나가서 기초적 공동체를 개척하는 것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 제 동기나 친구 목사들을 보면) 교회개척을 할 때 ABC가 중요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한다. A는 Attendance. (사람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B는 Building. 교회 건물이 교회개척의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는 Cash이다. 이런 교회가 매력을 끌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것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심게 되는 매체들이 될 것이다.

널 콜(Neil Cole)은 유기적 교회운동(organic church)을 펼치고 있는 분이다. 이 운동은 교회를 운영하는 기준들을 단순하게 하고 제자도의 기준은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히 교회가 숫자를 덧붙이는 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자라고 새로운 개체를 낳는 번식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분이 사실 교회의 ABC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교회, 성장하고 번식하는 유기체적 교회는 교회의 ABC가 아니라 DNA를 강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D는 Divine Truth(진리의 말씀)이다.

N은 무엇일까?

Nurturing relationship(서로 돌보는 관계)을 말한다.

A는 Apostolic mission(사도적 사명)이다.

결국 보낸받은 공동체가 개척하는 공동체가 들고 나갈 것은 복음의 정수, 복음의 메시지뿐이다.

개척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개척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예비하심이다. 개척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들고 나갈 것은 있어 보이는, 안정감을 줄 것 같은 전매나 주머니나 신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 생동하는 DNA뿐이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개척의 전략이다. 어떤 현장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할 것인가? 사역의 현장은 주로 길거리가 아니라 집이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대신에 7절에 의하면 평안을 벌고 들어간 '그'집에 (그 한 집에) 머물면서 9절에 거기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필요를 채워주고 메시지를 전달이라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확한 의미는 잘 알기가 힘들지만 미루어 생각해 보면 '길에서 아무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행위는' 일단 급한 마음에 뭔가 전달하려는 메시

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뉴앙스가 있다. 대개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랬고, 지금 이 보냄받은 임무의 중차대 힘을 생각해 볼 때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대중을 향하여 접근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전략은 좀 다르다. 두사람의 낯선 사람을 받아 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한집을 중심으로 개척의 사역을 생각하신다. 일단 두사람이 한 집에 가서 "평안"을 말한다. 이 때 마음이 준비되어 있거나 낯선이를 받아들일 따뜻함이 있는 이가그 집에 있으면, 말로 전한 평안대로 그 집에 복음의 평안이 뚫고 들어 가는 것이다. 같이 먹고나누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 들이고 그리하여 그 동네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두세사람이 내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영향력있고 성품이 준비된 소수의 사람으로 개척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21세기 교회의 혁신과 사명이란 부제를 가진 마이클 프로스트(바보예수의 저자)의 책 "다가올 교회의 모습"이란 책에서 새로운 교회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몇가지 제안을 하는 중에 "'평화의 사람들'을 발견하라"라는 제안을 하고 있었다.

'건물에서 근사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인쇄매체든지 전자매체든지 근사한 홍보를 하는 것에 엄청난 예산을 써서 시작하는 교회개척이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72명(혹은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보내실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 저집 옮겨 다니지 말고" 평화의 사람, 좋은 평판이 있고, 영적으로 열려 있으며, 자신의 마음이나 집단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 그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동이 일어나는 방식을 택하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개척하는 교회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평화의 사람", "평화의 집"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개척, 추수, 선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네트워크 공동체의 꿈을 나누고 싶다. 언제든지 커피숍에서, 여러 장소에서,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 그 전략상, 꼭 소그룹이라든지 가

정교회라든지 하는 구조(structure)로 접근하기 보다는 정신으로, spirit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이런 추수의 작업, 개척의 작업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얻게 되는 사실은 이 일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예고이다. 3절에서도 이미 본 바대로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양의 형국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분량상으로도 6절의 '그렇지 않으면 꽤 10절 이하에서 16절까지 전부가 이런 두 사람의 팀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거부당했던 마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하면서, 보내시는 제자들 역시 비슷한 거부를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신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셨을 때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교만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던 마을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언급하시고, 이 마을들에 대한 심판의 선고를 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치 않도록 미리 준비시키신다. 거절을 당할 것이니 거절을 기본으로 여기고 그 위에서 사역하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거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 거절하는 사람들은 보낸받은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사람을 전혀 영접할 여유가 없는 도시와 사회 가운데서는 아마도 담대하게 반문화적 외침으로 외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의 의미("별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을 알라") 아닐까 생각한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친히 가시려는 사람들과 마을들에, 앞서 보낸을 받은 제자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낸받은 선교사들이고, 교회 공동체 개척자들이다. 우리가 들고 갈 것은 물질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안전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예비하심을 의지하는, 그리고 오직 핵심메시지인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나기야 한다.(ABC와 DNA를 기억하자.)

우리의 전략, 우리의 현장, 우리의 대상은 다수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영향력 있는 평안의 사람들이다. 이들을 통해 새로운 일들, 평안(샬롬)의 사건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해야 한다.

이 사명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쉽지 않고 거부당하기 쉬울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때때로 이런 순간에는 도시속에서 거리에서 반문화적 외침을 외쳐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와 동일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절위에서 사역하여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이런 성경적 원리 위에 서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3. 함께 하는 일상생활 정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린이들, 학생들, 젊은이들을 잊고 장년성도들을 위한 교회, 혹은 노년성도들을 위한 교회로 화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주일학교와 청년사역이 수련회다 캠프다 성경학교다 하면서 그때마다 일시적인 영적 허구에 가까운 영적 체험을 강조할 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랜 훈련과 순종을 강조하는 영성적 삶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 는 생각이 듦다. 이것은 결국 신앙을 주일, 예배당, 예배시간, 찬양시간에만 가두어 두고 평일, 세상, 일상생활, 허드렛일에 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이원론적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 젊은이들은 기독교신앙에 대해 적실성과 일관성(공간적으로는 교회와 교회바깥의, 시간적으로는 주일과 나머지 6일의)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월요일의 사람들

월요일은 사람들에게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월요일은 부담스러운 날이다. 월요병이란 말이 왜 생겼는가 생각해 보면 휴일이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에 대조되어 월요일이 되면 닥치게 되는 일에 대한 부담,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들에 대한 부담, 부담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월요일은 무엇일까? 때때로 일 반인들이 느끼는 부담보다 훨씬 많은 부담이 되는 날이다. 주일이 "죽일"이 될 정도로 교회에서 소진된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동체를 위한 수고를 그치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교회 공동체마다 우리들의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저 개인이 어떻게 해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다 다각적이고 공동체적인 '주일보내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주일의 애클레시아(모임)가 평일의 디아스포라(흩어짐)를 위한 전략적 쉽과 충전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로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의 디아스포라적 삶이 풍성하려면 우리는 '월요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일터에서 이렇게 할 뿐 아니라 거꾸로 애클레시아인 주일 교회모임에서 이렇게 하면 교회의 체질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하는 교회는 주일 교회모임에서 나머지 6일을 위한 메시지와 나눔을 발견하여야 한다.

주일예배와 일상의 예배의 역학

"우리의 모든 일상적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굳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 는 시간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소위 "세속적 일원론"에 빠지기 쉽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천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서의 예배를 그것보다 못한 것으로 이해하는 또 다른 오류, 이 원론적 생각의 오류도 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극복하여 '삶으로서의 예배'와 삼위 하나님의 존재로 들어가는 '공동체적 예배', 혹은 개인적 예배의 "들고 납"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더 혁신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대하는 사물, 혹은 실재를 더 명확하고 예리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주일의 "함께하는 모임"과 나머지 6일의 흩어져 드리는 '삶의 예배'의 역동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신이 된다.

4. 순례자의식, 유목적 신앙, 흩어짐의 영성

(히브리서4장8-11절, 베전1:1-2, 야외 예배에서)

야외예배를 자주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한 소박하고 개인적 이유는 주일날 아이들과 손잡고 자연에 한 번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덧붙여 성프란시스처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영성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균형을 잡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쉼과 휴식'이 주일이 주는 안식의 중요요소인데 이런 쉼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기존 교회 속에서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일에 이런 쉼과 휴식을 누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런 이유와 함께 야외예배를 통해 정착과 안주하는 신앙이 아닌 유목적인 신앙과 순례자의식을 새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늘 그렇듯이 교회가 모종의 공간이 정해지면 그 공간을 채워놓고 싶고, 그렇게 하다보면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안주하는 신앙, 정착적인 신앙으로 화하게 되어 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유목민적 신앙을 가질 때 더 살아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자주 갖는 야외예배는 이런 유목민적 순례자적 신앙을 새롭게 하는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유기체적인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시작했다가 차츰 조직화하게 되고 안주하고 정착하면서 유기체적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조직화가 필연적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태도에 있어서 처음 생각과 의식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선교적 교회, 보냄받은 의식을 잊어 버리게 된 것은 역사속에서 다름아닌 콘스탄틴 정신, 크리스텐덤 사고때문이었다.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교회가 국교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소위 선교적 정신을 잊어 버리게 되어 버렸던 것이다. 주변부 관점이 아니라 중심부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인간을 자유케하고 매력적이고 영적인 파워로 사람들을 끌던 초대교회가 권력과 이를 얻을 수 있다는, 인센티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기독교가 황제의 권력등의 사람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다. 초대교회는 자신을 여기 있지만 여기 속하지 않은 나그네(Residentalien)와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그 가운데서 독특성을 보여주었지만,

콘스탄틴이후에는 교구가 존재하고 교구의 장인 주교의 영 향력속에 살고 있는 교구민이 되어 그 독특성을 잃어버렸다. 로마제국과 똑같은 가치인 엘리트 종교인을 추구하게 되면서 순례자적 정체성을 잃어 버렸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작고 겸손한 모임이었지만 콘스탄틴 기독교는 예배를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함을 통해 매력을 끌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사제들이 로마의 법복을 입고, 로마의 황제의식처럼 교회의 의식도 장엄함을 보이는 의식으로 바뀌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전 초대교회에서는 예배순서도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체계적이고 매우 극적인 예배를 추구하게 되었다. 선교도 예전에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였는데 이제는 교구의 영향력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였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이미지는 필그림, 순례자의 이미지라면 크리스텐덤 교회는 정착의 이미지였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유목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데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정착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유목적인 삶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 메시지이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더라도 부르심 이후 순례하는 삶이었다.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광야생활, 순례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 가나안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했지만 히브리서 4장 이 이야기하듯이 안식을 여호수아때 얻은 것이 아니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있지만 늘 광야의 삶, 순례의 삶을 기억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착한 이스라엘은 정착한 곳의 정착신 바알과 아세리를 쫓았다, 이런 안주와 정착의식은 예루살렘에 중앙성소가 세워지고나서 더 심화된 듯 하다. 그래서 그 이후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주의식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생각이 오히려 백성들로 배교에 이르도록 하였다.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을 흘으신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주였지만 다른 편에서는 축복이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전안에, 예배의 식안에 가두어 두었지만 바벨론으로 흘러진 이후에 바벨론에 흘러져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했다.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바벨론 땅에서 비록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흘러진 땅, 회당에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만이 원하는 삶은 정착하는 삶이 아니다. 정착하였을 지라도 그 가운데서 계속 순례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하였던 것이다.

신약의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제자와 함께 순례하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며, 이와 같은 순례하는 삶을 사도행전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정착하고 안주하려는 초대 예루살렘교회를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님은 흘러버리시고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안디옥교회가 생기고 지중해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러져서 하나님을 섭기고 세상을 섭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정착, 머물러 있기 안정을 추구하지 않도록, 흘러지고 순례하도록 하신다. 순례자적 정신, 유목민적 삶을 요구하신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는 비록 어설프지만, 흘러져 있는 삶을 구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6일동안의 삶, 흘러져 있는 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정착이 아니라 안정이 아니라 흘러짐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하도록 우리의 예배가 구성되어야 한다.

매주 공동체로드리는 예배가 유목성, 흘러짐, 순례를 생각하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야외예배를 이런 정신을 더 분명하게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어린이 신앙양육(교회 또 하나님의 기족 별책)

_ by 김종수 전도사 정리

다음세대의 양육 기본전제

첫번째는 자녀들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 둘째로 작은 교회로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일부가 되게 할 수 있다. 자녀들을 교회 생활로 통합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새로운 방법의 시도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 첫째로, 모든 어린이는 유일무이한 한 개인이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지 안할지를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각 어린이와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으신다. 우리는 어린이와 하나님의 관계가 자라도록 격려하지만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어린이와 하나님의 관계의 상태를 분별하려고 하고, 또 적극적으로 기도와 '구체적인 교육'으로 그 관계가 발전하도록 격려한다. 우리는 자녀들이 질문하고 의심하기 시작할 때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성장과 깨달음을 위해 필요한 전조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전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삼위일체적인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안에서의 관계다. 이 관계는 우리 삶 전체로 스며들고, 우리의 성격,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친구관계, 여가, 교회 생활 등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이 관계는 역동적이다. 끊임없이 변하며 끊임없이 성장한다.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관계는 태어나는 순간에 시작된다. 그러기에 어린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이 부모의 어깨에 놓여 있다. 이는 어린이들의 초기 성장기에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6:20 이하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실수하기 마련이기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절대로 혼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기쁨, 확신은 물론 의심, 절망,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기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자녀들이 우리의 순례 여정

에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어린아이들의 책임은 교회 공동체에게도 있다. 교회공동체는 어린이 사역을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사역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를 통하여 어린이 사역을 한다.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듣는 순간부터 교회공동체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교회공동체의 정식 지체이므로, 부모가 제공하는 역할 모델 외에도 부가적인 모델들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다는 것을 인식케 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함께 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어린이 신앙을 이루어 가는 방법

1. 모임에 어린이를 포함시킨다.
 - 노래하는 것을 통해 함께 한다.
 - 어린이들에게는 자기 수준에서 다른 아이들과 관계를 가질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함께 노는 것이다.)
2. 주의 만찬에 어린이들을 포함시킨다. (교회와 교단에 따라 입장이 다르지만)
 - 접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다.
 - 주의 만찬에 직접 참석하여 그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게 한다.
3. 교회 공동체에서 어린이가 구성원이 되었음을 축하해 준다.

II 함께하는 교회의 실제

1. 함께 하는 교회의 시작

2005. 5. 1. 함께하는 공동체 첫 예배
2006. 1 은혜공동체 첫 예배

2.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네트워크지문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없이(다른 말로 신학적 성찰 theological reflection 없이)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는 교회는 곧장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로 분주하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위해 구비(具備) 되기 보다 허비(虛費) 되는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교회들은 대형마켓과 같은 느낌을 받을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작은 교회의 신자들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작은교회들도 이에 질세라 그리고 성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애쓰다가 젊은이들과 지도자들이 허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세상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공동체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지에 관한 담론들은 적어지고 교회 자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모든 노력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더니즘적 개인주의와 경험에 대한 천착은 예배에 대한 곡 해를 낳아서 참석한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인상깊게 남는지를 가지고 예배를 평가하는 경향으로 연결되고 급기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임체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중심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배는 내가 관객이 되고 전문가들이 배우가 되는 공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참된 예배란 밴 패터슨이 말하듯이 관객은 삼위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 배우가 되어 공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잃어버린 진리가 되었습니다.

1) 하나님의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것, 그것이 성전이미지의 핵심이며 교회는 세상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진리를 보여주는 매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Trinitarian)

2) 하나님의 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자신을 위해 살고 존재한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앞부분만 불들던 이스라엘민족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오해한 이들은 결국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와 일하고 있는 일터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이며, 이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승리주의적 태도로가 아니라 함께 하며 섬기는 태도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교회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Missional)

3)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안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물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강조해야 하지만 그것만을 강조하게 되면 모더니즘적 개인주의를 더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본질속에 있는 공동체 성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공동체, 교회를 간과하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삼위일체안의 하나님처럼 제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missio) 하나님의 선교를 본받아 이 세상속에서 선교적인 교회로 설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Communal)

4) 하나님의 교회는 "시대적 고민과 함께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역사의식이라 표현해도 좋고 문화적 민감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시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겨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현실을 간과하지 않는, 포스트 모던적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모든 세대를 이해하고 감싸고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Emergent)

또 하나 덧붙여 생각하는 것은 부산이라는 지역을 생각하면서 지역마다 공동체를 이를 만한 크기의 "함께하는 교회"들이 서고 이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크"을 이루어 부산이라는 지역전체에 영향을 주는 꿈을 꾸 봅니다. 물론 이 "함께하는 교회와 그 네트워크는 이미 있는 지역교회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섭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새로운 열망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3. 함께하는 교회의 모임 안내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Ecclesia)와 흩어지는 교회(Diaspora)가
리듬을 갖고 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모임과 예배를 갖고 있습니다.

1) 함께하는 모임

1-1. 주일 모임

주일 모임 시간은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 IVF센터에서 주로 모이고 한달에 한 번은 순례의식(?)을 위해 야외나 멤버 집에서 모일수 있음

- 예배: 매주 일 오후 12시(정오)~오후 1시 20분
- 식탁교제: 1시 20분~2시 30분
- 소그룹교제: 2시 30분~4시

남성 Accountability group

여성 Sharing group

- 매월 마지막 주는 기혼클럽과 미혼클럽(청년회)

으로 모임

1-2. 리트리트 혹은 수련회

한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으로는 공동체성을 함양하기가 실제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근접해서 살 수 없는 도시환경도 제한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세 달에 한번씩 일박리트리트이나 수련회를 가집니다.

1-3. 기타모임

부정기적이고 사적인 모임들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정기적이다 못해 윤법적이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한달에 한 번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멤버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운영위원으로 봉사합니다.)

2) 흘어져 드리는 예배(평일과 일상의 예배)

저희 교회는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흘어져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간적으로 평일과 공간적으로 그리스도인 모임을 떠난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살 것인지를 오늘 우리의 최대의 과제요 관심입니다.

필요에 따라 함께하는 모임외에 평일과 일상의 삶을 도울수 있는 다른 교회나 단체에서 도움을 받는 일은 얼마든지 환영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보내심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선교현장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 함께하는교회 재정 집행 정책(2005년)

1) 전체 예산을 매월 교회 안, 교회 밖에 각각 50%를 사용한다.

2) 교회밖의 예산은

 ㄱ) IVF-5%

 ㄴ) 구제-15%

 ㄷ) 선교-15%

 ㄹ) 장기 프로젝트-15%

3) 교회안 예산은

 ㄱ) 식비

 ㄴ) 사례비

 ㄷ) 예비비(50,000원)

4) 항목설명

-장기 프로젝트는 교회가 훗날 이웃을 위해 큰 스케일의 사업을 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임(예를 든다면, 도서관, 학교

교 같은 시설)

-예비비는 교회내에 필요한 물품 가운데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물품의 필요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임(예를 들어, 냉장고)

-선교비는 선교사 2인(각 50,000)을 지원하는데 사용.

-구제비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돕는데 사용
(총액 100,000).

5. 사역자와 사례에 관한 생각(Theological Reflection)

_by 지성근 목사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자라는 사실을 상기합시다. 누가 더 나은 사역자이고 누가 더 위에 있는 사역자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member(지체)입니다.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든,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든, 전업주부든, 선생님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멤버이며 동시에 부름받은 곳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공동체에서 각 멤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모든 멤버들이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는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은사가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애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엡4:11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은사들을 position으로 이해하기보다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보다 책임을 스스로 느끼고, 이를 위해 자신을 준비하고 시간을 드리는 사람을 또 다른 의미에서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cf. 고린도

전서 3장 15절에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라고 했을 때 ‘사역자’는 바로 이런 의미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사역자 지성근 목사

예를 들면 지성근 목사는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멤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도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은사장(포지션 상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교회의 방향과 운영에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각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하지만) 이런 은사에 대한 인식은 혼자만의 인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함께하는 교회가 잘못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누구보다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에서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지성근 목사가 될 것입니다.(혹이 전술이 모든 멤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향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서로 서로를 향한 책임(accountability)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나눌 사역자 팀

만일 이런 책임으로서의 사역자의 은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체(member)를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다면 그것은 또한 고마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협력하고 서로 배우면서 공동체를 더 잘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역자 팀으로 이해한다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팀이지만 또한 공동체를 섬기고 책임지는 사역자 팀이 있는 셈이지요.

사역자의 사례에 관하여

이 지점에서 공동체 안의 사역자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은 이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제공해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사례를 받는 사역자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이지만 그것 보다 더 큰 원리인 복음의 진보를 위해 자신은 지금 자비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사

역자들에 대해 사례하는 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입장에서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만 사역자로서 공동체와 복음의 진보를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견지한다면 실제적인 사역자에 대한 사례의 예는 매우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일단 작은 공동체를 시작하였고 또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은 현금 사용의 원칙속에서 사역자의 경우 내부 50%중에서 쓰고 남은 것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현재 제가 단체로부터 일정 사례를 받고 있고, 더불어 교회가 주는 사례가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책임감을 주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원칙속에서 책임을 공유할 사역자가 있다면 그와도 이런 감사의 마음과 책임감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성장의 형편상 현재 공동체 상황에서 생활비 전부를 책임지는 사역자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와 유사하게 일정 생활비를 자비랑하는 사역자라면 현재의 원칙(저는 이 ‘원칙’이 율법이 아닌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 매우 유연성이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을 유지하면서도 동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부 50%에서 교회에 사용되는 경비를 제외한 사역자 사례를 그 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다른 편에서는 어느 정도 신선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 깊은 소망

저의 내면의 깊은 소망은 공동체 내부를 섬기는 (두번째 의미의) 사역자뿐 아니라 첫 번째 의미의 사역자들에게도 공동체의 현금이 사용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자체중 누군가가 직장이나 사회단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단체장이 된다든지) 그것을 공동체의 중요한 사역으로 인정해 주고 그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역비를 지급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물론 그저 개인을 위해 사는 삶을 넘어서서, 인류와 사회공동체를 위한 수고에 대해 지원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순진한 생각의 차원이지만...

• 참고도서

닐 콜 오가닉 처치, 가나북스
닐 콜 ITC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NCD
대릴 구더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신선한 통찰 - 미션톨-
레슬러 뉴비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ivp
레슬러 뉴비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진리 ivp
레슬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ivp
로버트 맹크스 일상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 ivp
로버트 맹크스 교회 또 하나의 가족 ivp
로버트 맹크스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여수론
로버트 맹크스 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 여수론
브라이언 맥라렌 나는 준비된 전도자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브라이언 맥라렌 저 건너편의 교회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브라이언 맥라렌 믿음 찾기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풀스티븐스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ivp
하워드 스나이더 참으로 해방된 교회 ivp
송인규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ivp
평신도 신학 12 홍성사
채희종 걸레질 하시는 예수 대한 기독교서회

